



5월 26일
수요일

보 도 자 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과	농업정책과	과장	손명도	팀장	차은령	☎	286-6240
----	-------	----	-----	----	-----	---	----------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접수

- 지난 2월 1차 신청기간 누락자 배려 차원 -
-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전라남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2월초 도내 22개 시군을 통해 운영했던 1차 신청기간 중에 신청을 못했거나 자격 요건에 변경이 생겨 새로 지원 대상자 자격을 얻은 여성농어업인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여성 농어업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서 작성 및 대상자 검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복바우처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이다.

대상자는 1인당 2만원의 본인 부담을 내면 2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단 ▲사업자 등록을 가진 자 ▲전업 직업(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월정급여액을 받는 자)을 가진 자 ▲농어업인의 자녀로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중복 수혜자 ▲사업시행 전년도 농외소득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행복바우처 지원이 농사일과 바닷일로 지친 지역 여성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서 신청을 못한 여성농어업인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에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영농경력 3년차 여성농업인 안보미랑(무안군 현경면 거주)씨는 “열심히 농사짓다 보니 봄 맛이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며 “좋은 시책을 만들어주신 도에 감사드린다”라는 뜻을 표했다.

전남도는 농촌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지난해 보다 대상인원을 4천명 늘려 9만 5천명에게 총 1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